

과학적 진실 밝힌 '제2의 과학커뮤니케이터'

글 | 이근영 _ 한겨레신문 과학담당기자 kylee@hani.co.kr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사건은 한국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과학과 공중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존재하였는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과학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는 생산자인 과학자로부터 소비자인 공중으로 흐른다. 과학커뮤니케이션도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처럼 정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학자가 직접 공중에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정보의 성격상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자가 필요하고, 저널리스트들이 대표적 매개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차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된다.

추상성, 전문성, 복잡성 갖는 과학정보

과학정보는 추상성, 전문성, 복잡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학의 추상성은 과학적 지식이 현상을 가장 간략하게 기술, 또는 설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과학의 추상적 특징이 과학보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보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면서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런 추상성이 과학보도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난관은 그것이 또한 일반 대중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리 놓음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학보도 담당자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정제된 과학정보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과학보도 담당자가 모든 분야에서 넓은 소양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다리들의 연결은 더욱 절실한 편이다.

과학의 지식추구 과정은 탐구 대상의 분기화로 말미암아 매우 전문적이게 됐다. 분화의 산물이 전문용어이다. 이런 축적된 지식은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교육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됐다. 과학보도 담당자들도 이런 이중적 전문성에 숙달되지 않으면 과학보도가 전문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도 보도대상이 지나치게 전문적 지식으로 이뤄져 있다면, 과학보도 담당자는 그것을 해석해줄 중개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중개인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에 익숙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일반대중과 연결시키는 과학보도의 특성도 감안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과학적 지식의 대부분은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형성돼 있다. 과학보도 또한 복잡성을 피할 길이 없다.

과학보도 담당자가 복잡성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와주는 중개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중개인은 특정 분야의 복잡성에 남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을 과학보도 담당자에게 적절히 전달해줄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과학정보 특성상 제2의 매개자 필요

과학정보의 이런 성격 때문에 과학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반커뮤니케이션과 달리 과학자와 저널리스트를 연결해주는 제2의 매개자가 필요하다. 이 매개자는 전문적으로 정제된 과학정보를 만들어주고, 전문적 지식을 해석해줘야 하며, 과학지식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제2의 매개자도 중요한 과학커뮤니케이터다. 이에 따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송신자는 과학기술인 자신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과학커뮤니케이터일 수도 있게 된다. 곧 과학커뮤니케이터는 과학기술계와 비과학기술계, 과학기술인과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과학기술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에 포함된 의미를 공유하도록 하는 매개자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인들이 사회구성원을 향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와줘야 한다는 당위와 사회구성원들이 과학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서로 만나는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 교수 논문조작 사건의 주체어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이다. 황 교수는 '난치병'이라는 공중의 주목도가 높은 문제를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토픽과 연관짓게 하는 데 큰 구실을 했다. 그러나 논문조작이 사건화한 뒤 공중의 주목은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에 쏠리고, 이는 '논문의 진실성'이라는 과학적 토픽과 연관지어졌다. 논문의 진실 여부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동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와 공중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의 구실은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단서들은 과학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고, 전통적 저널리스트들에게는 제2의 매개자, 곧 제2의 과학커뮤니케이터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제2의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은 이번 사안이 저널리스트들과 공중 사이에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연관지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황 교수 사건에서 제2의 과학커뮤니케이터로 규정할 수 있는 그룹으로는 기존 저널리스트들의 취재원들, 과학정보 사이트 활동가들, 익명의 제보자, 기존 과학커뮤니케이터였다. ㉔